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염건웅¹, 구상미^{2*}, 김래은³

¹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조교수, ²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유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부 조교수

The Effects on Harassment Behavior and Damage Behavior of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Gun-Woong Yeom¹, Sang-Mee Koo^{2*}, Rae-Eun Kim³

¹Assistant Professor, Police and Fire Administration, U1 University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1 University

³Assistant Professor,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U1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충북에 위치한 U대학의 6개 학과의 재학생은 총 233명이었다. 연구도구로 데이트폭력 인식은 정하윤(2013)의 도구를 사용하였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은 CTS2를 김정란(1999)이 번안한 도구를 적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을 위한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남자대학생,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인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male university student perceptions of dating violence on dating violence abuse behavior and damage behavior.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3 students from six departments at U University located in Chungbuk. As a research instrument, Haeun Yoon's(2013) instrument was used to recognize dating violence, and CTS2 was used as a instrument for harassment and damaging behavior of dating violence. For data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ating violence perception and damage behavior was performed,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harassment and damage behavior. First, it was show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harassment behavior or damage behavior an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in male university studen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harassment behavior and damage behavior of dating violenc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could be used as basic data to develop a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Key Words : Male University Student,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Harassment Behavior, Damage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Sang-Mee Koo(ksm@u1.ac.kr)

Received July 15,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Revised August 24,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연구의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기본 욕구와 이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대부분의 연인은 정상적인 데이트 관계를 유지하지만 일부 연인 관계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트 형태인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데이트 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한다[1]. 최근 연인관계에서 헤어지자는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한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등 정서적 폭력 또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가해자가 '나는 사랑한 죄 밖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자기 정당화의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한다. 즉,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하므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이는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2]. 더 심각하게는 결혼준비를 하던 남자친구에 의해 20대 여성이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비롯하여, 1년 넘게 교제하다 2달 전 헤어진 30대 남자친구에 의해 30대 여성 조모씨와 그녀의 부모, 할머니까지 일가족 4명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3]. 또한, 만취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힌 후 트럭을 몰고 돌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여자친구가 전화를 통명스럽게 받았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을 하였고, 사귀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 앞에서 벽돌로 내리쳐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4] 등 최근 언론에 남성에 의한 이별보복 범죄와 데이트폭력 사건은 수도 없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2017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6년 동안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는 상해가 4,48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4,373명, 성폭력 1,015명, 살인 96명, 방화 65명, 체포감금 54명의 순으로 모두 15,675명으로 집계되었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흉악범죄의 3.6%, 폭력범죄의 2.7%가 연인사이에서 발생하였고, 연인관계에서의 살인사건도 9.2%나 발생하였으며 상당수의 가해자가 남성이다[5].

데이트폭력의 특징은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은밀하고 만성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폭력사건의 경우 보통 타인과의 접촉에서 발생하여 순간적인 분노나 폭발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반

에는 가벼운 언어적·정서적·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다가 이후 폭력의 강도가 점차 강해지며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기해자 중 남성의 경우 상대에게 집착 증세를 보이고 폭력을 행사한 후 반성 또는 사과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해 여성이 용서를 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후 더 큰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연인으로부터 이러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는 적대심, 긴장감,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심리적 손상을 겪게 된다. 또한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자존감이 훼손되고 사회관계가 악화되며, 심각한 경우 '우울증'을 동반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며, 자살충동까지 불러일으킨다[6-8].

특히, 데이트폭력이 결혼 후 부부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이어져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야기하기도 한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서울시가 여성 2천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5%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46.4%가 가해 상대방과 결혼하였고, 이 가운데 17.4%는 결국 '가정폭력으로 이어졌다'고 응답하였다[9].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이성교제 시기인 대학생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내의 법은 별도의 처벌조항이나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통상적인 폭력 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이미 적극적인 '데이트폭력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예로,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가정폭력 전과 공개제인 일명 '클레어법'을 통해 연인의 데이트폭력 전과 조회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실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다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 증거를 수집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데이트폭력의 범죄 특성상 육체적·물리적 폭력보다 정신적 폭력에 대한 피해가 더 지속적이며 빈번히 발생하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범죄 피해가 인지된 이후 다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된 법적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단호한 대처와 적극적 증거 확보만이 재발 발생을 차단하고 지리한 법적공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남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라는 연구[10,11]들을 바탕으로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젠더 폭력의 전형적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남학생의 데이트폭력의 가해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인 중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12]과 데이트폭력 피해경험[10,13]으로 나타나 남자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과 가해경험은 물론 피해경험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첫 단계로 데이트폭력의 위험이 높은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데이트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1-1.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1-2.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1.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2.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충북에 위치한 U대학교의 남학생 233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각 특성에 따른 빈도 및 백분율은 Table 1과 같다.

경찰소방행정학부 학생은 115명(49.4%),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계열 학생은 53명(22.7%), 사회복지상담학부 학생은 40명(17.1%), 호텔외식조리학과 학생은 25명(10.8%)이었고, 성경험은 '있다'가 152명(65.2%), '없다'가 81명(34.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10명(47.2%)으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이 46명(19.7%), 3학년이 57명(24.5%), 4학년이 20명(8.6%)으로 가장 적었다. 현재까지 만난 이성교제 수는 1~3명이 112명(48.1%)으로 가장 많았고, 4~6명이 68명(29.1%), 10명 이상이 35명(15.1%), 7~9명이 12명(5.1%)이었으며, 0명이 6명(2.6%)으로 가장 적었다.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raits of university students (N=233)

| Division | | N | % |
|---|--------------------------------------|-----|------|
| Major | Police & fire administration | 115 | 49.4 |
| | Health care | 53 | 22.7 |
| | Social welfare and counseling | 40 | 17.1 |
| | Hotel and food service culinary arts | 25 | 10.8 |
| Experience of intercourse | Yes | 152 | 65.2 |
| | no | 81 | 34.8 |
| Grade | 1 | 110 | 47.2 |
| | 2 | 46 | 19.7 |
| | 3 | 57 | 24.5 |
| | 4 | 20 | 8.6 |
| Number of heterosexual relationships we have met so far | 0 | 6 | 2.6 |
| | 1~3 | 112 | 48.1 |
| | 4~6 | 68 | 29.1 |
| | 7~9 | 12 | 5.1 |
| | Over 10 | 35 | 15.1 |

2.2 연구도구

2.2.1 데이트폭력 인식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정하윤(2013)[14]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정서적 폭력(8문항), 언어폭력(9문항), 성적 폭력(4문항), 신체적 폭력(7문항), 사이버 폭력(7문항)에 대한 인식으로 총 5개 하위요인, 총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절대 데이트폭력이 아니다' 1점에서 '매우 심각한 데이트 폭력이다'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최하 35점에서 최대 175점의 점수분포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인식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이 .97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정서적 폭력 .90, 언어폭력 .91, 성적 폭력 .92, 신체적 폭력 .91, 사이버 폭력 .92로 나타났다.

2.2.2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등 (1996)[15]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김정란(1999)[16]이 번안 및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의 문항은 심리적 폭력(11문항), 신체적 폭력(7문항), 성적 폭력(4문항)의 총 3개 하위요인,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위 주체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게 가해행동을 한 경우는 '가해행동'으로 측정하였고,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행동'으로 2가지 범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자주'(5점)에서 '없음'(1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해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행동의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피해를 많이 받았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9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심리적 폭력 .95, 신체적 폭력 .93, 성적 폭력 .96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데이트폭력 피해행동이 .9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은 심리적 폭력 .91, 신체적 폭력 .92, 성적 폭력 .95로 나타났다.

2.3 연구절차

예비조사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최종 설문지는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U대학의 6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총 250명에게 본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초기에는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같은 번호를 무성의하게 응답하였거나 무응답이 많은 등 부실 기재된 설문지 및 설문을 거부한 대학생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적용된 설문지는 총 233부(93.2%)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25~30분 정도이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첫째, 남자대학생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셋째,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변수의 특성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피해행동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ach variable

| Division | | N | M | SD |
|-------------------------------|------------------------|-----|--------|-------|
|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 Emotional Violence | 233 | 24.12 | 6.85 |
| | Verbal Violence | 233 | 31.35 | 7.45 |
| | Sexual Violence | 233 | 13.45 | 4.02 |
| | Physical Violence | 233 | 27.52 | 6.10 |
| | Cyber Violence | 233 | 24.97 | 6.58 |
| | Total | 233 | 121.40 | 27.55 |
| Harassment behavior | Psychological violence | 233 | 16.70 | 6.47 |
| | Physical violence | 233 | 8.12 | 2.92 |
| | Sexual violence | 233 | 4.52 | 1.76 |
| | Total | 233 | 29.33 | 10.12 |
| Damage behavior | Psychological violence | 233 | 16.71 | 6.17 |
| | Physical violence | 233 | 8.60 | 3.37 |
| | Sexual violence | 233 | 4.61 | 1.95 |
| | Total | 233 | 30.03 | 10.46 |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은 언어폭력이 31.35점이었으며, 신체적 폭력, 사이버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심리적 폭력이 16.7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데이트폭력 피해행동도 심리적 폭력이 16.7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2. 변수 간 상관관계

3.2.1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and harassment behaviors of dating violence

| | Psychological violence | Physical violence | Sexual violence | Total |
|--------------------|------------------------|-------------------|-----------------|---------|
| Emotional Violence | -.11 | -.12 | -.14* | -.13* |
| Verbal Violence | -.13* | -.19* | -.23** | -.18** |
| Sexual Violence | -.12 | -.15* | -.21** | -.17* |
| Physical Violence | -.19** | -.30*** | -.34*** | -.26*** |
| Cyber Violence | -.13* | -.23*** | -.26*** | -.20** |
| Total | -.15* | -.22** | -.26*** | -.21** |

* p<.05, ** p<.01, *** p<.001

Table 3과 같이,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과 전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1, p<.01$).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하위요인인 심리적 폭력행동($r=-.15, p<.05$), 신체적 폭력행동($r=-.22, p<.01$) 및 성적 폭력행동($r=-.26, p<.001$)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3.2.2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간의 관계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and damage behaviors of dating violence

| | Psychological damage | Physical damage | Sexual damage | Total |
|--------------------|----------------------|-----------------|---------------|---------|
| Emotional Violence | -.16* | -.16* | -.12 | -.18** |
| Verbal Violence | -.16* | -.19** | -.20** | -.21** |
| Sexual Violence | -.13 | -.16* | -.14* | -.17* |
| Physical Violence | -.15* | -.27*** | -.31*** | -.26*** |
| Cyber Violence | -.14* | -.22** | -.23*** | -.21** |
| Total | -.17* | -.23*** | -.23*** | -.24*** |

* p<.05, ** p<.01, *** p<.001

Table 4와 같이,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과 전체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간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24, p<.001$). 전체 데이트폭력 인식은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하위요인인 심리적 피해행동

($r=-.17, p<.01$), 신체적 피해행동($r=-.23, p<.001$) 및 성적 피해행동($r=-.23, p<.001$) 모두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3.3. 회귀분석 결과

3.3.1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he effects of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on harassment behavior and the sub-factors of dating violence

| Independent | Dependent | B | β | t | R | R ² | F |
|-------------------------------|------------------------|-------|---------|----------|-----|----------------|----------|
|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 (Constant) | 21.09 | | | | | |
| | Psychological violence | -.04 | -.15 | -2.37* | .15 | .02 | 5.61* |
| | (Constant) | 10.99 | | | | | |
| | Physical violence | -.02 | -.22 | -3.48** | .22 | .05 | 12.13** |
| | (Constant) | 6.55 | | | | | |
| | Sexual violence | -.02 | -.26 | -4.15*** | .26 | .07 | 17.19*** |
| | (Constant) | 38.64 | | | | | |
| Total harassment behavior | -.08 | -.21 | -3.24** | .21 | .04 | 10.51** | |

* p<.05, ** p<.01, *** p<.001

Table 5와 같이,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 p<.01$), 설명력은 4%로 나타났다($F=10.51, p<.01$).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하위요인 중 심리적 폭력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5, p<.05$), 설명력은 2%로 나타났으며($F=5.61, p<.05$), 신체적 폭력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2, p<.01$), 설명력은 5%로 나타났으며($F=12.13, p<.01$), 성적 폭력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6, p<.001$), 설명력은 7%로 나타났다($F=17.19, p<.001$).

3.3.3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및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및 데이트폭력 피해행동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effects of awareness of dating violence on damage behavior and the sub-factors of dating violence

| Independent | Dependent | B | β | t | R | R ² | F |
|-------------------------------|----------------------|-------|---------|----------|-----|----------------|----------|
|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 (Constant) | 21.31 | | | | | |
| | Psychological damage | -.04 | -.17 | -2.61* | .17 | .03 | 6.80* |
| | (Constant) | 11.97 | | | | | |
| | Physical damage | -.03 | -.23 | -3.54*** | .23 | .05 | 12.55*** |
| | (Constant) | 6.57 | | | | | |
| | Sexual damage | -.02 | -.23 | -3.56*** | .23 | .05 | 12.64*** |
| | (Constant) | 40.86 | | | | | |
| | Total | -.09 | -.24 | -3.68*** | .24 | .06 | 13.52*** |

* p<.05, *** p<.001

Table 6과 같이,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피해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4$, $p<.001$), 설명력은 6%였다($F=13.52$, $p<.001$).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하위요인 중 심리적 폭력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17$, $p<.05$), 설명력은 3%였으며($F=6.80$, $p<.05$), 신체적 폭력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3$, $p<.010$), 설명력은 5%였으며($F=12.55$, $p<.001$), 성적 폭력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3$, $p<.001$), 설명력은 5%였다($F=12.64$,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

해 폭력인식의 하위요인인 언어, 성적, 신체적, 사이버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폭력 가해행동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일이 가해행동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12-14]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데이트폭력인식이 낮다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폭력을 분명히 인지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연인 간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일로 여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12]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트 관계에서 왜곡된 폭력에 대한 인식은 폭력을 허용함은 물론 폭력을 정당화하며, 관계에서 갈등을 증폭시키고 결국 가해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17]. Jeong[14]은 왜곡된 인식과 비합리적 사고가 데이트폭력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네트(vigne)를 사용하거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상황을 제시하여 폭력상황인지 아닌지를 알아차리도록 하는 실제적 방법들을 통해 올바른 이성교제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선행연구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해 왜곡되거나 비합리적인 인식 형성의 원인으로 밝혀진 변인으로는 가정폭력 경험[17,18], 아동기 학대경험[19,20], 지속적인 성 미디어 노출[21,22], 전통적인 성역할 신념 및 태도[23,24] 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 이와 같은 심리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들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피해행동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피해행동은 주로 여성에게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으나[10,13] 본 연구 대상자에서는 가해행동만큼이나 피해행동의 경험도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Kang[24,25], Luthra[26]의 연구에서도 남성과 여성에게서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어 추후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의 발생의 빈도 외에도 폭력의 형태 및 질적인 부분까지 다

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의 피해경험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데이트 관계에서 피해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경우가 많아 폭력을 허용하게 되며, 지속되는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데이트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4-26]. 따라서 데이트폭력의 피해경험이 많은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인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현장에서 예방적 중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성교제 시작시기가 빨라지면서 중고등학생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경험이 보고되고 있음으로[27] 데이트폭력을 예방하여 안전한 커플관계를 이어가도록 교육 현장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남자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이 줄어들며, 피해행동도 적게 경험함을 의미하며, Lim[12]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의 피해경험을 데이트폭력 인식과 함께 다루거나 폭력의 유형을 분류하지 않고 연구하여 연구 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데이트폭력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17,28,29]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인식 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키고, 이들에게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교내 전문 심리상담가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들어 스토킹이나 상대방의 행동통제 등 데이트 폭력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비해 기존 연구의 데이트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도구가 스토킹, 행동통제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심리적 폭력 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거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다. 현재 국내대학생의 데이트 문화와 데이트폭력의 유형 및 심각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피해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에 관한 도구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 데이트폭력 연구의 상당수가 여학생의 데이트폭력의 피해행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데이트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의 피해행동을 포함하여 이를 경험적으로 다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자를 충북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직 진행된 바가 없는 전국 단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조사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둘째, 데이트폭력의 유형별 가해동기와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및 피해행동 및 데이트폭력 인식에 관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한시적 시점의 양적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연인 간 데이트 관계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폭력 예방 및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M. A. Straus.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 790-811.
- [2]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20). Stalking and Dating Violence(Online). https://www.stop.or.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65&srch_menu_nix=zYCE5436&srch_mu_site=CDIDX00005
- [3] S. G. Han. (2018). *Murder women in a week's cycle... Any answers to dating violence?*. The Asia Business Daily(Online). <https://www.asiae.co.kr/article/2018102614480044937>
- [4] Y. A. Choi. (2017). *I'll kill you. The date violence king who drove a truck to his girlfriend*. The Asia Business Daily(Online). <https://www.asiae.co.kr/article/2017072011062660710>
- [5] Institute of Justice. (2018). *White paper on crime in Korea*. Jincheon: Institute of Justice.

- [6] V. L. Banyard & C. Cross. (2008). Consequences of teen dating violence: understanding intervening variables in ecological context. *Violence Against Women, 14*(9), 998-1013.
DOI: 10.1177/1077801208322058
- [7] L. Eshelman & A. A. Levendosky. (2012). Dating violence: Mental health consequences based on type of abuse. *Violence and Victims, 27*(2), 215-228.
DOI: 10.1891/0886-6708.27.2.215
- [8] C. Sabina & M. A. Straus. (2008). Poly 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667-682.
DOI : 10.1891/0886-6708.23.6.667
- [9] D. R. Park. (2018). 9 out of 10 women in Seoul are victims of dating violence. The first survey of local governments. Newsis. (Online) <https://news.joins.com/article/22328805>
- [10] K. H. Suh. (2002). The role of anger and variables from social learning theory in inflicting dating violence among adolescents. *Korea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8*(2), 1-15.
- [11] J. Archer.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DOI : 10.1037/0033-2909.126.5.651
- [12] C. Y. Lim, S. Y. Jung & M. S. Lee. (2010).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 147-179.
- [13] K. H. Suh, B. J. Kim, G. C. Jeong & S. S. Kim. (2001).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Women's Health, 2*(1), 75-97.
- [14] H. Y. Jeong. (2013).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REBT-based dating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middle school students*,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Pusan.
- [15] M. A. Straus, S. L. Hamby & S. Boney.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 Mar*, 283-316.
DOI : 10.1177/019251396017003001
- [16] J. R. Kim. (1999).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Ph.D dissertation. Cheonnam University, Gwangju.
- [17] S. Y. Jung, C. Y. Lim & M. S. Lee. (2011).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4), 127-151.
- [18] J. H. Mun & H. J. Chung. (2015). College students'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and violence tolerance. *Family and Family Therapy, 23*(4), 627-653.
- [19] J. Y. Lee & K. J. Oh. (2007). The effect of witnessing marital violence in childhood on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2*(4), 433-450.
- [20] Y. J. Seo.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ffecting Dating Violence of High School Students: Comparison of Gender Group*. Ph.D dissertation. Uiduk University, Gyeongju.
- [21] S. M. Coyne, L. M. Ward, S. L. Kroff, E. J. Davis, H. G. Holmgren, A. C. Jensen, L. W. Essig. (2019). Contributions of mainstream sexual media exposure to sexual attitudes, perceived peer norms, and sexual behavior: a meta-analysis. *Th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64*, 430-436.
DOI : 10.1016/j.jadohealth.2018.11.016
- [22] A. C. T. Shen, M. Y. L. Chiu & J. Gao. (201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chinese adolescents: the role of gender-role beliefs and justification of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6), 1066-1089.
- [23] M. O'Keefe. (2005). Teen dating violence: A review of risk factors and prevention efforts. *National Electronic Network on violence against women, 1*, 1-5.
- [24] H. S. Kang & E. S. Lee. (2014). Predictive factors for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cadem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23*(4), 288-298.
DOI : 10.12934/jkpmhn.2014.23.4.288
- [25] H. S. Kang & E. S. Lee. (2010). Factors associated with perpetration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Health Education Promotion. 27*(3), 75-84.
- [26] R. Luthra, C. A & Gidycz C. A.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DOI : 10.1177/0886260506287312
- [27] S. A. Jang & K. S. Lee. (2019). Prevalence and predictors of teen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youth.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1), 789-819.
DOI : 10.22251/jlcci.2019.19.21.789

- [28] Y. J. Ha & M. K. Seo. (2014).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4), 79-103,
- [29] E. J. Koo et al. (2019). The correlation between perception of emotional dating violence and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s. *Health and Nursing*, 53, 44-48.

염 건 웅(Gun-Woong Yeom) [정회원]



- 2019년 2월 : 한양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경찰학, 범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
- E-Mail : guncool@u1.ac.kr

구 상 미(Sang-Mee Koo) [정회원]



- 2015년 8월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유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예방교육 프로그램
- E-Mail : ksm@u1.ac.kr

김 래 은(Rae-Eun Kim) [정회원]



- 2011년 8월 : 경성대학교 생활문화학과(이학박사)
- 2013년 8월 : 경성대학교 유아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6년 4월 ~ 현재 : 유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사회복지상담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발달심리, 정신건강, 교사교육, 교육 프로그램
- E-Mail : versus486@u1.ac.kr